

목포·신안통합 경제적 파급효과 1조 9000억원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2026년 통합시 출범 목포 로드맵 제시 관광객 수 2200만명까지 증가 예측...“목포시 전폭적 양보 필요”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대 남캠퍼스에 열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목포대 김병욱 교수가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0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양 지역 주민 의견조사 결과와 청주시 통합사례를 접목한 75개의 상생협력과제 도출, 통합 로드맵 제시 등이 있었다.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市)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로드맵으로는 8월까지 공감대 형

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2025년 3월 도시사 통합시 건의,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용역사에서 실시한 목포·신안 통합관련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신안군민 62.8%가 반대한 것은 대부분의 신안군민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목포시에서 많은 것을 주어야만 반대여론을 누그러뜨리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목포시의 전폭적인 양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를 선정해 머리를 맞대고 추진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의회에 조례 발의를 통해 법적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는 신안군 쓰레기도

처리 가능한 대규모 친환경 소각장 착공, 신안군민 화장장 이용과 관련한 화장로 1기 증설, 학교급식으로 신안군에서 납품 가능한 신안군 친환경농산물 구입해 사용 중”이라며 “시에서도 신안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오는 8월 중 시군통합추진위원회 중심의 통합추진공동위원회와 변호사, 교수,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실행위원회는 매 15일 주기로 정례회의를 갖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월 1회 전체 위원회 정례회를 통해 이행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시와 신안군은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7월 중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신안 2회, 목포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박홍률(왼쪽) 목포시장이 목포대 남캠퍼스에 열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전국 최초 완도 섬마을 치안 ‘112한달음선’ 뜬다

완도자치경찰, 주민 안전망 구축 선박 26척, 범죄·재난 신속 대응

완도군이 작은 섬마을의 치안을 위해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을 띄운다.

‘112한달음선’이란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가 적은 섬의 주민 치안을 위해 군이 지원하고 완도경찰서가 지령·요청해 운항하는 민간 선박이다.

발대식은 김현철 완도부군수, 김양훈 완도군 의회 의장,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112한달음선’ 대원으로 위촉된 26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12한달음선’은 범죄나 재난 등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의미로 한 번에 달려간다는 뜻의 ‘한달음’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완도군은 54개 유인도서 중 파출소(11개소)와 치안센터(3개소)가 있는 곳은 14곳뿐이다.

올해 초 ‘완도군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을 운영하게 됐다.

‘112한달음선’은 12개 읍면 총 26척으로 한달음선 대원들은 선박을 소유한 어업과 양식업, 자



완도 섬마을의 ‘112한달음선’.

영업, 마을 이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파출소가 없는 섬에서 사건이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웠으나 ‘112한달음선’이 경찰관 출동을 도와 초동 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12한달음선’은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이 출범하면서 군민과 행정, 경찰과의 협력 관계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관·경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미세먼지 없는 신안 만든다...하반기 전기자동차 200대 민간 보급

승용차 1440만원까지 지원

신안군이 ‘미세먼지 없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 전기 승용차 100대, 전기 화물차 100대 등 총 2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신안군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보급확산을 위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4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056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또 ▲전기 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및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전기 승용·화물을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가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작8은 섬(낙도)의 모든 경유차를 무공해 자동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경유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400만원, 신규 전기차 구매 시에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광주은행과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용자금(최대 3000만원)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이전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관내 사업장을 둔 기업, 법인, 공공기관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무공해차로 전환 촉진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의 갯벌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 유디치과의원

전남장총과 업무협약

건강 의료실천 다짐

(사)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전남장총)와 목포 유디치과의원이 지난 5일 의료복지지원 협약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장애인들에게 의료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장총이 추천하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체결했다.

진료항목으로는 스케일링(비급여에 한함), 실란트(비급여항목, 13세 이하 1인당 2개), 임플란트, 충치보철치료와 치과관련 상담 등이다.

이와 함께 전남장총이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 스케일링(비급여에 한함), 실란트(비급여항목, 13세 1인당 2개)와 치과 관련 상담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이로 인해 검진 후 발견된 질환을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은 서비스를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임흥민 전남장총 회장은 “유디치과는 1992년 유디치과 1호점을 시작으로 30년 이상 꾸준한 길을 걸어온 치과전문 병원으로 알고 있다”며 “목포 지역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현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목포 유디치과의원 관계자들이 복지지원을 위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적으로 봉사해 늘 고마움을 갖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더 양질의 치료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진우 유디치과 대표원장은 “목포 유디치과는 앞으로도 건강한 의료를 실천하고 평

등한 의료 실현과 사회적 나눔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며 “앞으로도 치아건강 증진과 질 높고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기자 노트

의장단 선출 갈등...시끄러운 목포시의회

목포시 민주당이 표류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가 최근 불거진 시의원의 음주 운전 파문으로 여론 또한 싸늘해 일찌감치 심판론까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내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이탈표가 이어지면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경선 결과에 반발해 의장단 선출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난 1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 열어 후반기 2년간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부의장, 4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또 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귀선 의원이 ‘의장단 후보 선출은 공정성을 상실했다’라며 결과를 부정해 의장 출마 강행을 선언하면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경선 결과에 반발해 의장단 선출의 파행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목포시지역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경선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정당한 경선이었다”라며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막겠다”라고 징계를 예고했다.

목포시의회는 전제위원 22명 중 1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원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결과를 부정한 것을 두고 ‘해당 행위’라며 제명을 당해 16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과반으로 절대적이다.

민주당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결과의 불만이 의장 선거부터 불거졌다. 조성오 의원과 김귀선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조 의원은 14표를 얻어 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어 부의장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장봉선 서부취재본부 차장

선출된 김관호 의원이 단독 출마했으나 불신임을 받은 데 이어 관광경제위원장 후보 박효상 의원도 과반을 얻지 못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시의원 이 상임위원장에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사자인 박효상 의원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제가 속한 정당과 많은 분께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민주당에서 탈당키로 결심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목포지역위원장 관계자는 “지역위원회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전남도당에 징계 요청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혐의가 있는 부분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사를 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목포시의원들의 이러한 내부 갈등과 음주운전 적발 사건 등으로 목포시의 정치권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으며, 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원이 국회의원과 조성오 목포시의장이 연이어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목포시의회 직선선출 이래 초유의 원 구성 파행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일단 당선된 되면 닦아 소 보듯이 하고, 진짜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재선에 성공한 김원이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묻고 싶은 대목이다. /jbs@kwangju.co.kr

진도군,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흥상 제막

한국 축구계의 전설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흥상이 고향인 진도군 공설운동장 소공원에 세워졌다.

진도군은 김희수 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허정무 감독 흥상 제막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허 감독은 1955년 진도 출생으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사상 최초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도 이뤘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 출신 스포츠 선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9급 11명 채용... 16일~22일 접수

완도군이 2024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한다.

임용 직급은 9급이며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은 시설(일반 토목) 7명, 시설(건축) 3명, 공업(전기) 1명 등 총 11명이다.

군에서는 조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경력 경쟁 채용 시험부터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다.

응시 연령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거주지 제한은 없다. 접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며 27일 필기시험, 29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